

“영화산업계, 자금난 가장 심각한데 엉뚱한 정부대책”

지난달 실적 코로나19로 ‘역대최악’ 2월의 1/4... 최저 기록 재차 경신 CGV 이어 롯데시네마·메가박스도 ‘비상경영’... “자금난 해소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여파로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기’에 빠져든 영화산업계는 1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어느 때보다 긴급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질식사를 면하기 위한 ‘심폐소생’이 필요한데 여기에 한참 못미치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한 영화업계 관계자는 “영화관 입장료, 임금 등 자금난이 가장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안 자체도 대략적인 틀만 정해졌을 뿐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는 세부적인 안이 나오지도 않는 등 시기적으로도 늦다”고 지적했다.

◇영화관 3월 실적, 역대최저 2월의 ‘4분의1 토막’... “끝이 없는 암흑”

실제 코로나 사태가 절정에 달한 3월 영화관은 ‘역대 최악’이라는 수식어도 부족할 정도의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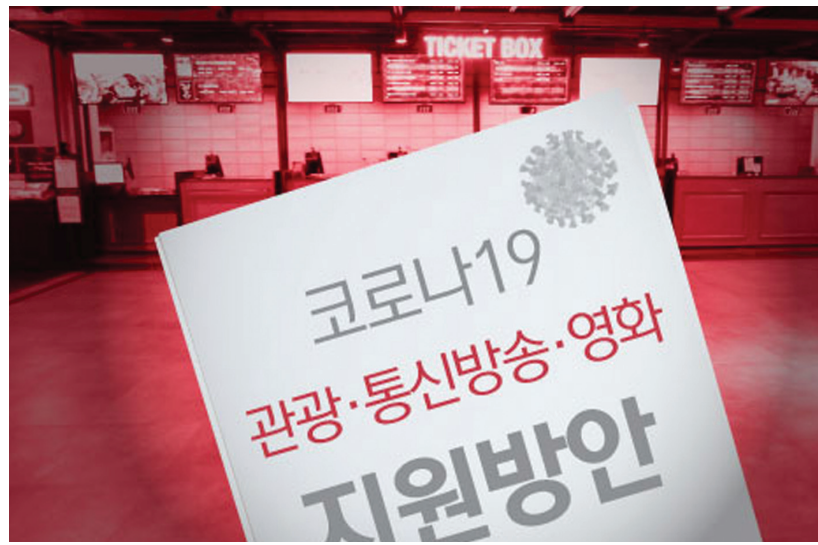
1일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 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3월 한달간 영화관 관객수는 183만 4418명, 16년 만에 최저 관객을 기록한 올해 2월(737만2110명)과 비교해도 ‘4분의1 토막’이 난 것이다.

매출 또한 1월 1437억원에서 2월 623억원, 3월 152억원으로 급전직하를 거듭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은 올해, ‘100년만의 최대 위기’라는 말이 업계 안팎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역대급 흑화기’에 떨어플렉스 영화관 업계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는 이달부터 3월 시행한 전 직원 대상 ‘유급휴가(연차) 월2회 사용 권고’를 ‘월4회 사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1회 무급휴가까지 더해 사실상 ‘주3일 근무제’에 들어간 것이다. 사실상 임원 대상 월급 20% 자진반납도 병행한다.

메가박스는 현재 운영하는 지점 102개(직영 44개, 회원사 58개) 중 3월 중 11개 지점(직영 2개, 회원사 9개)이 임시휴관 중이며 4월에는 직영 10개 지점이 임시휴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 직원 중 절반 가량이 4월 한달간 유급휴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GV는 영화관 3분의1 가량을 운영중단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섰다. CGV는 지난달 28일부터 직영 극장 116개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35개 극장이 문을 닫았다.

극장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전 임직원은 주 3일 근무로 전환했다. 고등 분담 차원에서 대표 30%·임원 20%·조직장 10%의 비율로 연말까지 월 급여를 자진 반납한다. 또 근무 기간 10년 이

상 근무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영화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3월 개봉예정작들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영화관뿐 아니라 업계 전반이 고사 위기로 내몰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영화발전기금 감면, 개봉지원 영화 마케팅 지원

등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광·통신방송·영화업계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영화산업계에 대해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20여년 상반기 개봉 연기·취소작의 개봉 마케팅을 지원하고 200여개 영세상영관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기획형 운영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촬영·제작이 중단된 한국영화의 촬영·제작 재개를 위해 20여년에 대해 제작지원금도 지원한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경우 영화관람 활성화를 위해 영화관람객 할인권 약 100만장을 제공하고 영화기금변경을 통해 홍보캠페인도 지원할 방침이다.

#안톤오노 #장시호 #상간남...김동성 이번엔 #나쁜아빠

올해 이혼한 부인에게 양육비·위자료 미지급

21. 김동성 (80년생 / 경기도 용인시 상원동 거주) * 전 쇼트트랙 선수 (1998년 동계올림픽 금메달 획득) *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이혼한 싱글맘에게 있어서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키는 생명줄이다.

그러나 고의로 이 책임을 회피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이 있다.

그들은 현재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그 책임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데 급급하며 자신의 처벌의 방패막이 삼기도 한다.

친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배드 파더’ (bad father)의 공개 취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배드파더스’는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돼야 할 가치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부모 10명 중 7명(73.1%)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마저도 소송으로 양육비 이행 채

권을 인정받은 경우만 집계된 자료로, 사실상 전체 한부모 가정의 미지급 비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이혼한 전 부인에게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지급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인 전 부인 및 취재 기자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고소당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배드파더스’에 올라와 또 한번 충격을 안기고 있다.

21번, 김동성 (80년생 / 경기도 용인시 00동 거주) * 전 쇼트트랙 선수 (1998년 동계올림픽 금메달 획득) *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이혼한 전 부인 이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혼 조정 성립된 2018년 12월 이후 (김동성)그는 아이들을 단 3번 만났고, 올해는 아예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고작 4년~6년 남았는데 양육비를 1년도 제대로

안줬다”고 했다.

언론에 따르면 양육비를 미지급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김동성은 애인에게 200여만 원짜리 코트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은 최서원 (개명 전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40)와 불륜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당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낸 전 아내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지난해 법원은 장시호에게 “7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동성의 ‘여자 이야기’는 장씨와의 이야기가 최초는 아니다.

김동성의 전 아내는 2011년 12월 8일 ‘스타부부쇼-자기야’에 출연해 “결혼식 일주일 전, ‘남편이 나이트서 부킹하고 있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혼 하루 전에는 오빠가 차에서 내려서 어떤 여자랑 영화관으로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충격적인 고백으로 놀라움을 안겼다.

김동성은 외도 사건 외에도 또 한번 시끄러운 연애 이력으로 입방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그는 친어머니를 청부살해 시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임모씨의 상간남으로도 지목된 바 있다.

살인 청부 이유는 “어머니가 자신과 김동성의 관계를 반대해서”라고 대중들에게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중학교 여교사 임씨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에스턴마틴 자동차와, 10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 수억 원 어치의 선물을 주기도 했다.

에이핑크, 1년 3개월 만 완전체 컴백...13일 EP ‘룩’ 발매

‘나’ 주제로 한층 깊어진 독보적 매력 펼쳐 보일 것 예고

10년차 K팝 대표 걸그룹 에이핑크(Apink)가 완전체로 돌아온다.

1일 소속사 플레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에이핑크가 오는 13일 미니 9집 ‘룩’(LOOK)을 발표하고 완전체 컴백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와 팬들을 만나는 만큼 멤버들이 컴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소속사 측은 이날 에이핑크 공식 SNS 및 팬카페를 통해 미니 9집 ‘룩’의 주요 콘셉트 공개 일정을 담은 스케줄러 이미지로 본격 컴백 행보를 알렸다. 이로써

에이핑크는 지난해 미니 8집 ‘퍼센트’(PERCENT) 활동 이후 1년 3개월 여 만에 완전체로 앨범 활동을 펼치게 됐다.

에이핑크의 새 앨범 ‘룩’은 ‘나’를 주제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내가 보는대로 살아 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한층 깊어진 에이핑크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펼쳐 보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데뷔한 에이핑크는 오는 4월 9주년을 맞으며 막강한 걸그룹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에이핑크는 그간 ‘파이브’(FIVE), ‘러브’(LUV), ‘미스터 챗’(Mr. Chu), ‘노노노’(NoNoNo) 등 다

수의 히트곡을 남겼으며, ‘1도 없어’, ‘%’(응응)으로 성공적인 콘셉트 변화를 이루며 많은 걸그룹들의 롤모델로 자리잡았다.

에이핑크는 올초 국내에서만 여섯 번째 단독 콘서트를 성료했으며, 다수의 해외 공연을 펼치는 등 대표 K팝 걸그룹으로서 국내외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완전체 휴식기 동안에는 각자 CF, 연기, 예능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활동을 펼쳐며 그룹을 넘어 멤버 각각의 존재감도 과시하고 있다.

꾸준한 성장을 이루며 2020년 뜻깊은 10년차 활동을 펼치게 된 에이핑크가 완전체로 돌아와 어떤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지 가요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엄현경 “연예계 떠날 생각도...‘해투’ 덕에 포기 안 했다”

오늘 오후 마지막회 방송... “시즌 멈추고 재정보”



‘해피투게더4’ 엄현경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토크쇼와 함께 찾아온다.

2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KBS 2TV ‘해피투게더4’ (이하 ‘해투4’)는 역대 여자 MC를 대표해 1년6개월 만에 녹화장을 찾은 엄현경을 비롯, 해피투게더 3MC

의 친구인 허경환 조우중 남창희가 출연해 ‘수고했다 친구야’ 특집을 꾸민다.

앞서 ‘해피투게더3’ MC로 솔직한 입담으로 매력을 선보였던 엄현경은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도 다이어트에 성공한 자세를 보며 “실물 보다 SNS가 낫다”고 거침없는 토크 토크의 포문을 열었다는 후문이다.

엄현경은 “허경환이 토크 할 때 MSG를 너무 많이 쳐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며 허경환 탓에 오해를 산 억울했던 에피소드를 해명, 밝혀진 사건의 전말에 허경환은 2년 만에 사과와 용서를 구했다고 전해져 두 사람을 둘러싼 사연이 과연 무엇일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또 엄현경은 “한 때 연예계를 떠날 생각까지 했었지만 ‘해피투게더’ 출연 후 연예계 생활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해피투게더’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방송은 ‘해피투게더4’의 마지막회다. 앞서 지난달 17일 KBS 측은 “‘해피투게더4’가 3월28일 마지막 녹화를 하고 4월2일 방송을 끝으로 시즌을 종료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잠시 시즌을 멈추고 재정비에 들어가기 위해 휴지를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차승원·유해진·손호준, 4년만의 ‘삼시세끼’ 어촌편...이달말 방송



tvN ‘삼시세끼’가 어촌편으로 돌아온다.

tvN 관계자는 1일 뉴스1에 “‘삼시세끼 어촌편’이 돌아온다”며 “차승원, 유해진, 손호준이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 말 방송 예정이며, 현재 제작 준비 중으로 촬영 시기나 장소 등의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삼시세끼’는 도시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한 끼’ 때 우기를 낚설고 한적한 시골 및 어촌, 산촌에서 가장 어렵게 해보는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0월 중영한 엄정아 윤세아 박소담의 ‘산촌편’을 선보인 바 있다.

차승원 유해진이 출연하는 ‘삼시세끼’는 지난 2016년 7~9월 방송된 고창편 이후 약 4년 만이다.